



국토교통부

보도참고자료

배포일시

2018. 6. 22.(금) / 총 6매(본문4)

담당 부서	철도운영과	담당자	·과장 박지홍, 사무관 홍철, 주무관 김민균 ·☎ (044) 201 - 3975
	신교통개발과		·과장 신윤근, 사무관 김선욱, 주무관 김연우 ·☎ (044) 201 - 3820
	혁신도시지원 정책과장		·과장 오성익, 사무관 권오혁 ·☎ (044) 201 - 4484
	한국철도공사 역운영처		·처장 김양숙, 부장 백종무 ·☎ (042) 615-3993
	(주)SR 마케팅부문		·부문장 배진원, 책임 권찬호 ·☎ (02) 6484-4405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철도 역까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하세요

7월 중 공공형 택시, O2O 등을 철도 역에 첫 도입 ... 카셰어링도 확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한국철도공사(사장 오영식), (주)SR(대표이사 이승호)는 철도 역사까지 보다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통수단을 역사에 도입하는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교통수단은 공공형 택시(일명 100원 택시), 승합렌터카 공유 O2O(Online to Offline) 서비스*이며, 카셰어링도 역사에 전용구역을 신규 설치하는 등 확대한다는 방안이다.

* 여객분야 중개(알선)는 규제없는 자유업/렌터카업체는 11~15인승 승합차 임차인에게 운전자 알선 가능 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)

□ 전국 2시간대 고속철도망 시대에 돌입하며 철도는 국민의 생활 속에 보다 빠르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,

○ 출발지에서 역사, 역사에서 목적지까지는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이동이 필요하며,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서는 적은 수의 노선버스와 긴 배차간격으로 역사 이동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었다.

-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철도 연계교통 수단이 도입되면 이러한 불편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.
-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연계교통 수단을 선정하여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의 이동 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.
 - ①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권에는 카셰어링 ② 역사에서 멀리 떨어진 혁신도시에는 바쁜 철도 출퇴근객의 시간 절약을 위한 O2O 기반 교통수단 ③ 대중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형 택시 등이 바로 그 수단이다.
-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은 ▲종합연계 시범역사 ▲개별 교통수단별 시범역사 등 2가지 방향으로 선정하여 추진한다.

《 종합 연계 시범역사 》

- 우선, O2O, 카셰어링 등의 교통수단을 집약한 종합 연계 시범역사는 수서역과 익산역 2개 역사를 선정하였다.
 - 이들 역에는 카셰어링, 승합렌터카 공유 O2O 서비스, 종합병원 셔틀버스(수서역), 시티투어 버스(익산역) 등의 다양한 연계교통 수단을 도입하여 이동편의 향상 효과를 눈여겨 볼 계획이다.
 - 특히, 수서역에는 카셰어링과 O2O 서비스 차량이 대기하고, 이용객이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‘모빌리티존’을 설치하여 전용 기반시설 조성 효과도 모니터링한다.

《 개별 교통수단별 시범역사 》

- 다음으로, 교통수단별 도입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형 택시, O2O 기반 서비스, 카셰어링 등 개별수단별 시범역사도 선정하였다.

- 공공형 택시는 역까지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부족해 열차 이용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영월, 정선, 밀양 등 시·군 지역의 11개 역사*를 선정하였다.

* 영월, 정선, 밀양, 신태인, 오수, 임실, 삼랑진, 상동, 함안, 하동, 북천

- 승합렌터카 공유 O2O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라 철도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와 지역 이용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남 혁신도시 인근의 나주, 강원 혁신도시 인근의 만종 등 2개 KTX 역사를 선정하였다.

- 카셰어링은 현재 50여개 역사에서 이용이 가능하나, 그간 많은 역사에서 전용면 없이 운영되어 주차된 차량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.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광주, 천안아산, 오송 등 10개 역사*에 전용구역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.

* 천안아산, 오송, 청주, 마산, 정읍, 조치원, 광주, 병점, 경기광주, 양평 (각 3개면)

□ 연계교통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.

《 공공형 택시 》

- 공공형 택시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오지마을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역 역사에서 인증 절차가 완료된 코레일 회원이 콜센터 (☎1544-7788)를 통해 승차권 예매 시 공공형 택시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한다. 단, 공공형 택시 예약은 당일 예매 고객에 한해 지원한다.

《 승합렌터카 공유 O2O 서비스 》

- 승합렌터카 공유 O2O 서비스는 코레일의 경우, 승차권 예매 시 코레일톡에서 제휴상품의 연계교통을 선택, 해당 앱으로 이동한 후 출발지와 목적지, 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입력하여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.

* ①코레일톡 승차권 예매 → ②모바일 승차권 제휴상품 → ③연계교통(O2O 앱 링크) → ④목적지·출발지·시간 입력 → ⑤가격 확인 → ⑥승차정보 입력 → ⑦O2O 예약 → ⑧목적지 역사에서 O2O 차량 탑승·이동

- SRT도 코레일과 유사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, 올해 하반기 중 수서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빌리티존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.

《 카셰어링 》

○ 카셰어링은 이용객이 회원으로 등록한 해당 업체의 앱 또는 웹을 통해 예약하여 이용하면 된다.

□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철도역 연계 교통수단은 7월 중 이용이 가능하다.

□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, (주)SR은 이번 시범사업 후 연계 교통수단을 전국 철도 역사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○ 이를 위해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고,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·보완하며 철도 이용객이 보다 편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.

○ 특히, 철도 역사에서 멀리 떨어져 고속열차 이용이 어려운 진천, 음성, 충북 혁신도시 등과0... 같이 철도 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이용요구자의 의견수렴, 연계교통 수단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·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홍철 사무관(☎ 044-201-3975), 신교통개발과 김선욱 사무관(044-201-3820), 혁신도시지원정책과 권오혁 사무관(044-201-4484), 한국철도공사 김양숙 처장(042-615-3993), (주)SR 배진원 부문장(02-6484-440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공공형 택시

- 교통 소외지역 마을 →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이동을 위한 취지로 도입
 - * 지자체에 따라 100원~2,000원의 최소 요금을 받고, 운임차액은 재정보조
 - 100원 택시의 시·군별 확산 과정에서 지역민 수요에 따라 목적지가 버스정류장에서 읍·면 소재지역(병원, 시장, 관공서 등)으로 확대
 - * 전국 121개 시·군에서 운영, 이 중 열차 운행지역은 78개 지역

□ 승합렌터카 공유 O2O 서비스

- 이동하는 지역이 유사한 이용객들이 구간을 정하여 앱·웹으로 승합렌터카를 예약하고, 원하는 지점에서 탑승, 하차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
- ※ O2O(Online to Offline) : 온라인의 고객을 모아 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서비스. 정보유통이 저렴한 온라인과 실제 소비가 일어나는 오프라인을 접목

□ 카셰어링

- 출발지 근처 카셰어링 대여소에 주차된 렌터카를 앱·웹을 통해 무인방식으로 예약,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서비스
 - * 현재 50개 철도역사에서 카셰어링 운영 중

구분	분류	대상역	역수	비고
공공택시	시범운영	신태인, 임실, 오수, 영월, 정선, 삼랑진, 밀양, 상동, 함안, 하동, 북천	11	지자체 협의완료
O2O 기반	시범운영	만중, 나주, 익산	3	이지식스 협의
카셰어링	기 존 운 영	딜 카	19	딜카 전용구역
		쏘 카	10	쏘카 월정기주차 (업체 상황에 따라 상시 변경)
		그 린 카	21	그린카 SRT 전용구역, 코레일 월 정기주차 (업체 상황에 따라 상시 변경)
		확대예정	10	딜카, 쏘카, 그린카 전용구역 (6월말 공개추첨 예정)